道伴의 향기

클럽 부띠스타(Club Buddistar)

불교로 회통한 4色 하모니 …



“불교음악 대중화, 포교 효과”

조혁준

“인연 따라 불교 입문”

김태근

“불교도 음악도 좋다”

권기덕

“젊은 불자 늘어나는 계기를”

차헌호

#2000년대 후반, 약관(弱冠)을 갓 넘긴 젊은 두 남성이 속초 신흥사 산사음악회 무대에 섰다. 지인이 성악을 전공한 자신들에게 독창 기회를 준 것이다. 한창 산사음악회가 불교문화의 유행으로 번지던 시기, 불심(佛心)은 갖고 있었지만 절에 다니길 어려워했던 청년들은 이때부터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아카펠라 그룹 활동을 하던 또 다른 두 청년. 대중가요와 아카펠라를 연습하며 음악적 소양을 키우던 때에 자신들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그룹에 가입했다. 청년들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힌 아저씨와 인연을 쌓아나갔다. 덕분에 불교와 가까워졌고, 불교음악도 알게 됐다.

‘불교음악 중흥’ 나선 청년들

앞서 소개한 서로 다른 네 명의 청년들은 2015년 3월 하나로 뭉쳤다. 그들과 인연을 맺은 지인이자 아저씨인 박성규 지휘자(50, 제니스불교문화원장)의 뜻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불교음악의 다양화와 저변확대’였다. 박 지휘자와 청년들은 ‘클럽 부띠스타(Club Buddistar)’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에 들어갔다. 부띠스타는 불교신자를 의미하는 이태리어 ‘Buddista’와 유명인을 뜻하는 ‘Star’를 합성한 것으로, 스타 불교신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부를 담았다.

2030 · 남성 · 크로스오버(Crossover)…. 불교와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이 단어들은 클럽 부띠스타를 대표한다. 부띠스타는 제니스불교문화원 소속으로 여성합창단인 제니스합창단과 함께 법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차헌호(31 · 보리, 카운터테너) · 김태근(30 · 덕현, 퍼커션) · 조혁준(27 · 선우, 바리톤) · 권기덕(26 · 덕비, 테너) 씨 등 총 4명이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솔리스트로 활동하던 음악가라는 점이다. 게다가 그 분야도 겹치지 않을 만큼 각자의 특색이 강했다. 그런 이들이 현재는 하나의 단체로 불교음악 대중화를 위해 담금질하고 있다. 찬불가 · 클래식 · 대중가요 ·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합창단에 편중된 불교음악을 넓히는데 힘쓰고 있다. 클럽 부띠스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네 청년을 하나로 엮는 데는 박성규 지휘자의 원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는 오래전 불교와 관련된 TV프로그램에 나온 배경음악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2004년이죠. 월정사 단기출가를 주제로 한 MBC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입니다. 당시 다큐에 사용된 배경음악을 젊은이들에게 맡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상과 음악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편으로는 ‘과연 불교계가 이런 배경음악을 만든다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음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지휘자는 클럽 부띠스타 창단 이전부터 각 멤버들과 7~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점차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갔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창단 얘기를 꺼냈을 때 멤버 모두 흔쾌히 받아들였다.

성악을 전공한 막내 권 씨는 “어린 나이에 산사음악회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아들 같은 청년이 노래하는 모습이 좋게 보인 것 같다”며 “불교도 좋고 음악도 좋아 부띠스타 멤버 참여 권유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서 퍼커션 실력자로 이름 난 김 씨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다”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인연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창단 보다 ‘클럽’ 성격 짙어

클럽 부띠스타는 흔히 ‘4인 전문 남성중창단’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은 이름처럼 ‘클럽(Club)’

인프라 부족 느낀 불교음악 저변

박성규 지휘자, 다큐 보며 실감
멤버별로 오랜 기간 인연 쌓아
2015년 3월 ‘클럽 부띠스타’ 창립

2030 불자음악인 하나로 合心

우연한 기회에 불교 접한 청년들
불교음악 다양화 위해 뜻 모아
장르 구분 없이 크로스오버 접목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찬불가 크로스오버 서원



클럽 부띠스타 단체사진. 왼쪽 세 번째(뒷줄)가 박성규 지휘자다. 그 앞은 前 음악감독 이다슬 씨.



2015년 8월 열린 제니스합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서 공연하는 부띠스타.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멤버들이 합창으로 대변되는 클래식서 벗어나 장르를 한정짓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크로스오버를 즐기기 때문이다. 각각 성악과 대중가요, 퍼커션을 하던 멤버들이 뭉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지휘자는 부띠스타의 강점으로 개인역량과 앙상블을 꼽았다.

"중창단 대신 클럽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솔로부터 듀엣, 트리오 등 가변적으로 공연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 객원멤버를 넣어 곡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중점을 두면 국악단체와, '청춘'에 중점을 두면 힙합그룹과 협연하는 등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시도가 이뤄집니다."

박 지휘자는 이 같은 부띠스타의 특성을 살리면서 불교적 가치를 곡에 넣기 위해 대중불교음악 PBM(Popular Buddhism Music) 개척에 열중이다. 기독교 찬송가로 사용되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인기비결을 '대중성'으로 진단한 그는 "불교적이면서도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년 반 남짓 불교계서 활동한 부띠스타는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았다. 청주 관음사 산사음악회, 서울강남성모병원 제16회 루푸스의 날 음악회, 부산불교합창제 등에 참여해 실력을 뽐내며 수많은 청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현재는 내년 정식 앨범 발매와 창단연주회를 단기적 목표로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부띠스타는 이에 앞서 경험삼아 비매용 가앨범을 녹음해둔 상태다.

앨범에는 '부처님의 향기' '부처님오신날' 등 찬불가를 비롯해 팝송인 'My way', 대중가요 '행복을 주는 사람' 등 총 9곡이 수록돼 있다. 파트가 다른 4명의 목소리가 지루하지 않고 어울리는 게 독특하다. 성악을 전공한 조 씨와 권 씨의 묵직한 음성 위에 카운터테너 차 씨의 여성스러운 고음이 얹히고, 퍼커션 김 씨의 꾸밈없는 목소리가 퍽 조화롭다.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플라시도 도밍고 · 존 덴버의 'Perhaps love'나 우리나라 이동원 · 박인수의 '향수'처럼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크로스오버곡들이어서 신선함도 담겨있다.

맏형인 차 씨는 "부띠스타의 가장 큰 목표는 불교음악의 부흥이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앨범을 제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순서"라며 "이를 계기로 불교계에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 씨는 "많은 불자님들이 부띠스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노래가 불교계에 퍼진다면 포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자세로 공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명가수만 찾는 불교계 현실

특색 사라진 산사음악회
불자음악인 위한 무대 적어
신행 · 음악활동 병행하지만
불교가 찾아줄 때 큰 발전

클럽 부띠스타는…

전통 찬불가와 대중 찬불가, 클래식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며 불교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4인 남성 전문음악인모임이다. 이태리어로 불교신자를 의미하는 Buddista와 유명인을 뜻하는 'star'의 합성어다.

멤버 각각 성악 · 실용음악 · 아카펠라 · 퍼커션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래식과 합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5년 3월 창단 이후 각종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서 경험을 쌓고 있다. 현재 'Club Buddistar'라는 비매용 가앨범을 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정규 앨범 발매와 창단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 관심이 곧 動力

부띠스타 멤버들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교계 관심이 절실하다. 이는 박성규 지휘자를 비롯한 멤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불교계 산사음악회는 대부분 유명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자들의 아쉬움을 사는 일이 많다. 산사음악회이기 때문에 불교적이어야 하건만 청중을 모으는 데만 집중해 생긴 결과다.

"불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불교에 도움 되는 일을 하려 합니다. 불교계에 흔치 않은 특성을 가진 부띠스타이기에 시장성이 높지만 불자들이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불심과 실력을 겸비한 음악가들이 알려질 때 불교음악 저변확대는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박 지휘자는 인터뷰 도중 불교계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으론 그만큼 불교계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멤버들 역시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보다 음악인으로서 살기 위해 음악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많은 활동무대를 필요로 한다. 그나마 제니스합창단 후원회가 도움을 주곤 있지만 음반제작과 홍보 등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후원 없이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부띠스타는 현재 신행활동과 동시에 그룹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강구하고 있다. 매달 서울 양재동 제니스 스튜디오서 열리는 불자들을 위한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가해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사찰 정기법회 소규모 찬불가 음성공양도 알아보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한걸음씩 내딛는 이들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뚜렷하기만 하다.

"우리만 잘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불교음악이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띠스타 말고도 많은 팀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여성팀이나 아카펠라팀 같이 특색 있는 음악그룹들이 계속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젊은 불자들과 중장년층 모두를 위한 찬불가가 꾸준히 나오게 될 겁니다."

젊은 불자이자 음악을 하는 이들에게 불교계는 분명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환경 탓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청춘이기에 고맙고 아름답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부띠스타가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여는 선구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법일기

"귀 있는 자 들어보라"

"따르릉~." 정적을 흔드는 전화벨소리에 나른한 오후의 단잠에서 깨어났다. "내일모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법회가 있는데, 그때 법고(法鼓)를 울려줄 수 있으신가요?"

법고를 야외에서 울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진 않지만 이런 현장에 법고가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해보기로 결정했다.

길 위로 옮겨진 법고를 법고대에 올리니 어른 키만큼이나 솟은 모양이 참 늠름하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위치한 위안부 동상 옆에 나란히 놓으니 가냘픈 소녀상 머리 위를 법고 그늘이 살짝 덮는다. 아는지 모르는지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막아주겠다는 법고의 따뜻한 마음 아닐까?



그림 · 박구원

법고를 울리기 전 개인적으로 항상 하는 의식(?)이 있다. 일명 '문성의식(聞性儀式)'이다. 바로 법고 울리는 곳의 뒷면을 쓰다듬거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의식이다. 그것은 앞쪽 면만으로는 소리가 날 수 없는 근본을 사유하는 것이고, 거침없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 동안에도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법고를 야외로 옮겨 설치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이 법회를 하는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법연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통감했다. 그제야 위안부 할머님들의 가슴속 응어리 맺힌 마음들이 북 표면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게 느껴졌다. 얼마나 가슴에 깊이 담아 숨기고 싶었을까?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상처와 수치심을 뒤로한 채, 지난날 그들의 어리석었던 행동과 만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촉구하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외침은 얼마나 당당한가? 벌써 1200여회가 넘도록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고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외쳐야 그들의 가슴속까지 울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할머님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는 있을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렵게 세상에 드러냈지만, 졸속으로 맺은 합의로 인해 이제는 그만하자고 위로 아닌 강요를 하는 이 형국에 또 얼마나 상처가 더해졌을까?

행사 시작과 동시에 천지를 울리는 기세로 법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10여분을 북에 붙은 마음을 풀어내려 있는 힘껏 울렸다. 법고 소리는 구슬펐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작은 평화를 일깨우기에는 충분히 힘찼다. 하지만 울리면 울릴수록 더욱 진하게 우러나오는 슬픔의 덩어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 짧은 시간에 깊이 묻어둔 응어리들을 풀어내겠다는 생각은 사실 오만이었다. 일본 본토까지 닿을 기세였던 북소리는 이내 도시의 소음, 자동차 경적소리와 기자들의 사진기 셔터소리, 군중들의 울부짖는 소리들로 다시 묻혀버렸다.

그래도 북의 앞면은 소리를 멈췄지만 뒷면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법고를 혼자서만 울린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법고시연은 끝났지만 인사말을 하셨던 스님들께서, 노래를 했던 친구들, 발언 및 성명서를 낭독하며 모인 이들, 그리고 이 할머님들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모아준 우리 모두의 소리들이 법고를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길게 느껴졌던 몇 시간의 행사가 아픔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의 작은 기억과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의 울림이 꽁꽁 얼어붙은 가슴들을 녹여 함께 공명할 때까지 우리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이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절망의 슬픔을 흔들어 깨우는 동시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자. 꽃다운 소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리를. 둥~둥~둥~.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